

올해 쌀 농사 풍년에 가격 요동칠라...정부, 시장격리 등 검토

쌀 생산량 338만t, 전년비 9.1% 증가...내달 중순 확정

20kg기준 평년비 1만원 비싸지만 출하기 폭락 가능성

정부가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32만t가량 늘면서 쌀값이 크게 요동칠 것에 대비해 수급 상황에 따라 시장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박영범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2021년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수확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

기재부,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 17명 참여한 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15일 기준 2021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38만t이다.

올해 재배면적이 73만2000ha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고, 9월 중순까지 평년과 비슷한 기온에 일조는 약간 부족한 수준이지만 예상생산량은 전년보다 9.1% 늘어난 32만t 증가했다.

다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벼 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가 평년보다 증가했다.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일조량 등 기상여건에 따라 작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현재 예상생산량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다음달 15일 쌀 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정확한 수급 상황을 추정할 수 있을 전

망이다.

올해 산지 쌀 가격은 수확기 초기 햅쌀 수요와 지난해 작황 부진 영향 등으로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했다.

이달 초 20kg기준 5만6803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확기 4만7491원과 비교해 1만원 가까이 비싸다.

하지만 전체 재배면적의 91.5%에 해당하는 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면 일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출하하고,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35만

t를 매입하고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3000억원(정부 1조2000억원, 농협 2조1000억원)을 지원해 수확기 안정적으로 벼 출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쌀 최종 생산량에 따라 수급안정제도의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쌀값 등 수급상황을 감안,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시장격리 요건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또는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수급상황을 감안해 매입 가능하다.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쌀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병충해, 후숙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벼는 농가 희망물량을 매입한다.

재해보험 가입 피해농가에게는 보험금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병해충 발병원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한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과 12월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다음달 15일 쌀 최종생산량 확정과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감안해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위드 코로나엔 함께 운동할 수 있을까'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2인 이상 참여하는 구기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10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이마트에서 지난

달 배드민턴용품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78.1% 증가했으며, 농구 배구용품(22.6%), 탁구용품(9.4%), 테니스용품(5%) 매출도 늘었다. 홈플러스에선 축구공·농구공·배구공의 합계 매출이 20%, 배드민턴 라켓·셔틀콕 매출이 각각 50% 뛰었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구기용품들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KFC, 광주 최대 상권 공략...광주터미널 유스퀘어점

지난 10일 오픈

글로벌 치킨 전문 브랜드 'KFC'가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광주터미널 유스퀘어점'을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터미널은 광주의 첫 관문 역할을 하는 교통 중심지이자 복합 문화공간이다. '유스퀘어'로도 불린다.

광주 최대 상권으로 꼽히는 광천사거리 한쪽 면을 차지하고 있다.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 쇼핑 시설을 비롯한 상업 시설, 대규모 공업 단지, 아파트 단지 등이 있어 유동인구와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KFC 광주터미널 유스퀘어점은 터미널 1층에 터를 잡아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외관에 레드, 화이트 등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해 시인성도 높다.



신메뉴 '켄터키바비큐통다리구이'를 비롯한 전 메뉴를 판매한다. 치킨을 '1+1'로 이용할 수 있는 '치킨나이트' 등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무료 와이파이와 정거별 오더, 딜리버리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마련했다.

KFC 관계자는 "이번 신규 매장은 광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교통 허브에 위치해 기대가 크다"며 "터미널과 유스퀘어 이용객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객이 편안하고 즐겁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車가격 고공행진' 국산차 1억 육박해도 잘 팔려



"국산차는 싸고 수입차는 사치품이라는 인식도 옛날 이야기예요. 웬만한 수입차보다 비싼 8000만원대 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도 날개돋친 듯 팔리는게 현실이죠."

국산 자동차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시장 점유율 1위인 현대자동차의 올 상반기 승용차 평균 가격은 4400만원으로, 1년 반 전인 2019년(3774만원)에 비해 16.6%(625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현대차 레저차량(RV) 평균 가격도 3544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18.5%(656만원) 올랐다.

기아의 경우 레저차량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 기아 레저차량 평균가격은 3891만원으로 2019년(3496만원)에 비해 395만원(11.3%) 상승했다. 승용차 평균가격은 3345

만원으로, 2019년(3259만원)에 비해 2.6% 상승했다.

승용차 역시 대표 모델인 티볼리(R 플러스) 가격을 70만원 올렸다.

현대차 가격이 기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제네시스 G90의 가격은 7903만~1억3253만원으로 최고가가 1억원을 훌쩍 넘는다. 지난 7월 출시된 제네시스 첫 전기차 G80 전동화 모델 역시 판매가가 8281만원부터 시작하며, 솔라루프 등을 추가한 풀옵션 가격은 9651만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베블렌효과(veblen effect)'가 자동차시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최근 주 소비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1980

"싼 국산차? 옛말"

년대~2000년대 출생)는 뚜렷한 명품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등이 막히며 소비 수요가 명품과 고급차로 쏠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자동차업체가 가격을 올려야 할 현실적 이유도 존재한다. 철광석 등 자동차 원재료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올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차량의 주요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은 2019년 t당 85달러에서 올 상반기 158달러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알루미늄가격은 같은 기간 t당 1792달러에서 2096달러로, 구리 가격은 t당 6004달러에서 8504달러로, 플라스틱 가격은 t당 1069달러에서 1198달러로 각각 상승했다.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인한 판매량 감소 역시 완성차업체의 가격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전세계적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물가를 압박하는 현상), 소비자들의 명품소비 성향이 만나 차량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반도체 부족으로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생기며 구매 대기 물량이 넘쳐나고 있는 것도 가격 인상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오유나기자

'오징어게임' 달고나 떴다...헬리원용 의상·가면도 불티



유통가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흥행에 따라인 특수수를 누리고 있다. 서바이벌 게임에 등장하는 달고나와 딱지치기, 구슬치기 매출이 급등한 것은 물론 오징어가 들어간 라면이나 과자도 평소보다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헬리원데이를 앞두고 오징어게임 속 의상과 가면도 인기를 끌고 있다.

G마켓, 오징어게임 공개 후 달고나 매출 610% 신장

11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G마켓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이 공개된 지난 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일간 서바이벌 게임으로 등장하는 달고나 상품 매출이 전월 같은 기간보다 610%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딱지치기는 95%, 상하 트레이닝복 매출은 89% 뛰었고, 구슬치기 매출도 11% 올랐다.

같은 기간 옥션에서도 달고나 매출이 717% 급증했고, 딱지치기와 구슬치기 매출은 각각 490%, 360% 늘었다.

헬리원데이를 앞두고 오징어게임이 키워드가 들어간 코스튬과 이벤트복 매출은 G마켓과 옥션에서 각각 36%,

150% 신장했다. 특히 △□○ 모양의 파티 가면 매출은 각각 650%, 121% 늘었다.

어렸을 적 즐겼던 추억의 놀이가 조명을 받으면서 문방구에서 먹던 추억의 간식도 소환했다.

편의점CU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쏘니기와 단팥캔디 매출이 51.2%, 33.0% 증가했다. 아폴로(30.6%), 피넛이(25.8%), 발두링(24.2%) 과자도 평소보다 많이 팔렸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오징어빵과 과자(24.1%)와 오징어집(26.9%) 매출도 덩달아 올랐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4분기 제조업 경기 기대감 '주춤' 디스플레이 등 하락 전망

산업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 조사

국내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올해 4분기 제조업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고 해석한다. 반대로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본다.

이번 조사는 국내 제조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올해 4분기 제조업 상황 전망은 100으로 전분기 대비 1포인트(p) 감소하며 2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다만 4분기 매출 전망은 104로 1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출(104) 전망치는 1p 감소하고 내수(102) 전망치는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재고 전망은 99로 전분기 대비 2p 하락하며 100을 밑돌았다. 자금사정(97)과 설비투자(103) 전망은 각각 2p, 1p 늘었다. 고용 전망은 103으로 전분기와 동일했다.

업종별 매출 전망을 보면 전체 13개 업종 가운데 디스플레이(89), 가전(95), 조선(85), 일반기계(99), 화학(98), 철강(97), 섬유(89)는 100을 넘기지 못했다.

100을 넘긴 업종 중에서 반도체(124), 자동차(104)는 전분기 대비 각각 12p, 1p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바이오·헬스(104), 정유(102)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무선통신기기(107)와 이차전지(106)는 각각 2p, 3p 하락했다.

유행병 매출 전망은 ICT(113) 부문만 전분기 대비 5p 증가했다.

이슬비기자